

## 대전센터 지역 병원들과 『의료지원 협력병원 협약식』 임시총회서 손종현 이사장 제3기 이사장 연임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손종현)는 8월 24일 대전지검 3층 중회의

실에서 지역의 병원들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대전센터의 의료지원위원회 소속된 위원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총 20개의 병원과 협력을 맺었다. 이로써 대전센터는 현재 협력중인 9개의 대학병원 등을 포함하여 29개 병원과 연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을 맺은 병원은 ▲감별 가톨릭 피부과 의원(원장 김운성) ▲A.스마일치과병원(원장 박철) ▲김상국 신경정신과(원장 김상국) ▲박비뇨기과(원장 박용진) ▲대전 카톨릭병원(원장 성진형) ▲유성정형외과(원장 권도원) ▲세

계영상의학과의원(원장 한세동) ▲이광우 치과의원(원장 이광우) ▲수이비인후과의원(원장 송영복) ▲우리의과(원장 정성필) ▲녹원치과의원(원장 강한중) ▲송촌산부인과(원장 양관철) ▲세브란산산부인과(원장 양관철) ▲한빛내과(원장 이두용) ▲연세 눈빛안과(원장 이효) ▲배사랑 내과(원장 이승민) ▲새순병원(원장 정재인) ▲The 맑은눈안과(원장 김세운) ▲맑은마음신경정신과(원장 이정은) ▲플랜트치과(원장 손외수)이다.

한편 협약식 전에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손종현 이사장(주)남산기공 대표이사)가 제 3기(2010.8.26 ~ 2012. 8. 25) 이사장으로 연임되었다.

## 피해자 가정 방문, 추석맞이 명절선물 전달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 밝혀

대전센터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소병철)과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금과 쌀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번에 방문한 가정 중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가정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에게 의해 자매가 수년간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가정은 자매의 남동생이 안과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어머니마저 허리가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이 가정은 철거촌 단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대전센터는 이미 사전 접수 후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원

원한 바가 있다.

가정방문에 참석한 대전센터 관계자는 “가정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만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종현 이사장 등이 피해가정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제주센터, 제5회 정기총회 및 연찬회 개최 피해자 900여만 원 지원금, 외국인에 첫 지원도 이사 3명에 검사장표창과 다문화가정분과 전문위원 등 위촉



▲강재업 이사장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강재업)는 8월 30일 19시 리마다호텔 탐타홀에서 제 5회 정기총회와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와 이진리 제주지검 검사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과 피해자센터 직원들을 비롯하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족 및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각 국가 대표 11명도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 전달식에서는, 참석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총 9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살인피해자 유족 A씨에게 생계보조금으로 300만원, 살인미수 피해자 B씨에게 1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태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로, 작년에 농업연수원생 신분으로 취업차 왔다가 동료의 칼부림으로 상처를 입고 치료중인 A씨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A씨는 제주센터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첫 사례이다.

이 사례를 계기로 제주센터는 제주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연찬회에 다문화 가족 대표들을 초대하여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지원과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행사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세심한 살피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범죄피해지원과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공자에게는 제주지검 이진리 검사장의 표창이 수여되는 한편, 앞으로 더욱 확장 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문화가정분과 전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기도 했다.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jejuvcv.org](http://www.jejuvcv.org)



## 전주센터

## 초·중·고등학생 위한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실시

검사 및 전문가 초빙, 2009년부터 지역학교 순회



(사)전주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홍종길)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에 있어서 흉악해 지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전주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센터에서는 2009년에는 지역 내 59개 학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도 10개 학교 학생 116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순회교육 기간에는 전주지검 범죄피해자 지원담당을 맡은 전병주 검사를 비롯한 지검 검사들과 협력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소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그 피해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본인과 타인에 인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의했다.

한편 전주지검 검사들은 강의 후 강사로 전액을 도서 구입하여 해당 학교에 기증했다.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상주·문경·예천센터

## 신임이사 위촉과 성금마련 위한 후원회 출범식

피해자 돕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 유도에 앞장



▲출범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정일)는 5월 12일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정일 이사장과 김한수 지청장, 허성환 전담검사 등 센터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의 신임이사 위촉식과 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후원회는 지역사회에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 되었다.

출범 이후 상주 상모병원에서 직원 및 병원을 찾는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총 168구좌(420,000원)를 모집했다.

출범식 행사에서 정일 이사장은 "신임이사들의 위촉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아름다운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에 출범하는 후원회가 범죄피해자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지역 범죄 피해자를 지역민 스스로가 돕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센터는 앞으로 지역 내 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널리 알리고, 후원회 모집 활동을 활발히 벌여 범죄피해자를 돕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유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 “2010 상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Day” 행사

홍보부스 마련해 리플렛 및 전단지 배포해



상주·문경·예천센터는 5월 29일 상주 북한 시민공원에서 개최한 “2010 상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Day” 행사에 참여하여 센터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상주시에서 주최하여 관내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원봉사 홍보 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의지를 향

상시키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상주·문경·예천센터에서는 40여개의 홍보부스 중 하나의 부스에서 리플렛 및 전단지, 기념품 각 500개를 배포하는 한편, 부스를 찾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사진, 포스터 등을 활용해 센터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센터에서는 그동안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지도 조사를 위해 참여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기도 했다.

◀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센터 부스에서 설문조사에 답하고 있다.



## 경남센터 의료·법률·상담총괄분과위원회 회의

### 분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모색



▲분과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연)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각각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5월 24일에 의료지원분과회의, 6월 3일에 법률지원분과회의, 6월 9일에 상담총괄분과회의의 일정으로 진행된 각분과 회의에서는 분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엔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된 신입위원들의 앞으로의 활동을 위하여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 ▲범죄피해자지원 절차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 ▲상담위원들의 자세 및 기본 상담 기법 등을 교육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연 이사장은 "효과적인 피해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도 전문화된 분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분과 위원회의 활동과 정기적인 회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고양·파주센터

## 일산경찰서와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체결

### 피해자 법률상담이나 피해보상 등의 지원도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갖고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이 법 지식 및 지원 절차에 대한 미숙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고양시 지역 내 성폭력, 강도, 상해 등 강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상호 협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약 내용에서 두 기관은 일산 지역의 범죄피해자가 사건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다짐하고

특히 강력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

협약식에서 손재상 이사장은 "그 동안 범죄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았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를 밝혔다.

이원재 일산 경찰서장은 "앞으로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쓰는 한편, 성폭력, 강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일념으로 범죄 발생 억제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사)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층 한울정에서 손재상 이사장과 이원재(이사장 손재상)는 6월 17일 일산 경찰서 일산 경찰서장,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

(사)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gpcvc.or.kr](http://www.gpcvc.or.kr)

### ■ 일산 경찰서와 연계한 피해자 지원 사례

#### 사건 1

##### 영리유인, 감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를 3개월 가량 피의자의 집에 감금하고,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파지 수질 등의 일을 시켰으며, 지속적으로 강간한 사건.

일산 경찰서에서 사건 의뢰 후 생계를 꾸려나가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통사고 이후 몸이 좋지 않아 겨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오빠 또한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 심의위원회에서 300만원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결연위원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정과 접촉하고 있음.

금번 한가위를 맞아 명절지원금 30만원과 쌀 20Kg을 지원함.

#### 사건 2

##### 강간미수, 폭행 피해자 지원

2010년 6월 중순경 서울 시내 모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의자와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의자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피의자가 들변하여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

사건 이후 심한 심리 불안과 더불어 강간 시도 시 피의자에 의한 구타에 의해 치료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산 경찰서에 의뢰에 의해 피해자센터와 접촉을 하여 의료비 100만원을 지원함. 또한 피의자의 가족들이 자꾸 찾아와 합의의 종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재판 당일 센터에서 법정 동행 출장 지원 함.

#### 사건 3

##### 성폭력 피해자 지원

2010년 7월 경 집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도중 칼을 든 강도가 침입하여 "소리를 지르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강간한 사건.

일산경찰서에서 사건 의뢰 후 피의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남편이 식당에서 주차관리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이며, 범행을 당한 현재의 주거에서의 이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개월 간 100만원씩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결연위원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상담 치료 중.

금번 한가위를 맞아 명절지원금 30만원과 쌀 20Kg을 지원함.



## 강릉센터, 단오축제와 해수욕장개장 기간 원주대 법학과 학생 및 자원봉사자 센터 홍보 정기적으로 지역 행사와 연계한 센터활동 알려

(사)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조병제)가 지역 내의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센터의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릉센터는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강릉 단오축제 기간에 센터 자원봉사자들과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한빛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함께 센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홍보 활동 간에는

사전 제작한 어깨띠와 홍보 리플릿 등으로 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축제에 참가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주민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존재와 하는 역할에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축제 기간 홍보를 통해 센터의 역할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홍보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보람된 일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동참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릉센터는 관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 자원봉사자를 1명씩 상주시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센터 홍보 활동을 벌인 바 있다.



▲학생들이 단오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홍보전단지를 전달하고 있다.

## 속초 · 고성 · 양양센터 추석맞아 범죄피해자 가정에 선물 전달



▲상품권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속초 · 고성 · 양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평규)는 중추절을 맞아 범죄피해자 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

속초 · 고성 · 양양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에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차례상 준비 등에 보탬이 되도록 재래시장 상품권을 선물함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시되었다.

행사에는 20명의 범죄피해자 가족과 최평규 이사장, 각 지역의 부이사장(속초/최근석, 고성/김기연, 양양/이형섭),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평규 이사장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전달식 이후에는 범죄피해자와 센터관계자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오찬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속초 · 고성 · 양양센터 관계자는 "명절같이 좋은 날 오히려 범죄피해자들은 오히려 소외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속초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okb.or.kr](http://www.sokb.or.kr)

## 공주 · 청양센터 '사랑의 나눔 행사' 가져 위원들 자발적 동참으로 쌀 200Kg 등 전달

(사)공주 · 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지연)는 9월 17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던 범죄피해자 5가정에 쌀을 비롯한 명절맞이 추석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센터 이범수 위원이 쌀 200Kg을 기증하는 등 센터 위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정안면에 거주하는 폭행상해 피해자도 있었는데,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체장애를 수반하면서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지난 7월 치료비로 5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번 행사에도 방문하여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다.

한편 공주 · 청양센터는 지난 9월 1일 총회를 개최하여 최재종 이사장에 이어 정지연 회부대표를 이사장으로 위촉했다.



▲이범수 위원이 피해자 가정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 경주센터 "한가위 사랑나누기" 피해자 14가정 선정해 생필품 전달

14가정을 선정하여 센터에서 준비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센터에서 준비한 쌀 10Kg, 라면 1박스, 멸치 1박스, 김 · 참치 세트 등을 전달함으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풍요로운 명

절을 보낼 수 있게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정우 이사장은 행사에 앞서서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 위트가 필

요하다"면서 "이 행사로 인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범죄피해의 고통을 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명절 인사말에 대신했다.

(사)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gjvc.or.kr](http://www.gjvc.or.kr)



▲이정우 이사장이 피해자 가정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정우)는 9월 14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던 범죄피해자 가정 중